

‘5명 사망’ 곡성 산사태는 ‘인재(人災)’

2004년 8월 태풍 ‘메기’로 같은지점에서 산사태

도로확장공사 중 ‘흙막이’ 등 안전시설물 미설치

경찰이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전남 곡성 산사태가 국도15호선 확장공사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시공사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곡성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 ‘흙막이’ 등 폭우 대비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시공사와 현장사무소, 감리업체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산사태가 발생한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뒤편 야산의 같은 지점에서 2004년 8월 태풍 ‘메기’로 인한 도로유실 등의 사고가 있었던 점을 파악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해 복구사업 일환으로 흙이 무너진 지형에 대한 보강 공사가 이뤄졌다.

이후 도로관리 주체가 지난 2008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

체로 이관됐지만 경찰은 당시 산사태 자료는 전남도 등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곡성 지역 등에 많은 비가 예보됐음에도 시공사 등은 절개한 지형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했다.

아울러 토사가 주먹 등이 있는 마을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도로확장공사는 지난해 12월 시작됐으며 내년 12월 완공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성덕마을 산사태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인 것으로 보고 발주처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도로확장공사 발주처인 전남도 도로



곡성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로 5명이 숨진 가운데 지난 8월 8일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뒷편 야산이 파여 있다.

관리사업소와 시공사 본사, 현장사무소, 감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건 초기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측은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 공사 현장 토사가 무너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점부터 지반이 무너졌고 510m 정도 떨어진 주택을

덮친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설계상 하자, 안전 조치 부실, 관리 감독 부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지역에는 550mm 이상의 비가 사흘동안 쏟아졌으며 지난 7일 오후 8시29분께 성덕마을 뒤편 야산 일부가 무너져 이장 부부 등 5명이 숨졌다.

기동취재본부

전남대 학생들 “교수 채용비리 의혹 진상조사해야”

“대학 차원의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전남대학교가 신입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가 불공정하다”며 채용 절차를 중단한 것과 관련, 일부 학생들이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대 채용비리 사건 학생 대

책회의’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학기 교수 공채와 관련해 특정 심사위원이 재심 청원을 하고, 공채공정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 들여 심사를 백지화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대학측은 채용 절차 중단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올해 1월 부산대, 4월 대전권 국립대 채용비리 의혹에 비취 볼 때 이번 사안도 중대비리 의혹이 있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학교수 성원과 시민들의 온라인 서명을 모아 전남대와 교육부에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리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고, 교직원 행동강령에서도 명확하게 금지하는 행위임에도 대학 차원의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학부생, 대학원생은 배제한 채 해당 학과 일부 교수가 심사를 독점하는 등 교수의 대학 운영 독점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봉우기자

광주 유아영어학원 ‘영어유치원’ 불법 명칭 논란

전체 13개원 중 8개원 명칭 사용중…행정처분 촉구

광주지역 일부 유아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

아(만3~5세) 대상 영어학원들의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전체 13개원 중 8개원이 그같은 명칭을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학원들에 대해 점검 후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광주지역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5월 현재 13곳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월 4800분, 1일 4시간(240분), 주 5일, 4주간 운영되

고 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영어유치원’, ‘킨더가든’, ‘캠퍼스’, ‘유아창의인지용합스쿨’, ‘국제학교’ 등으로 소개하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마치 정규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케하거나 원생모집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28조 2항(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이라는 게 학벌없는사회 측 판단이다.

정승호기자

냉동닭 화물선박서 ‘코카인 50만명분’ 적발

우리나라를 경유한 해외 선박에서 백악원이 넘는 마약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국가정보원, 관세청과 공조해 부산항에 머무르고 있던 15만3000톤급 선박의 컨테이너에서 숨겨져 있던 코카인 약 49.8kg을 적발해 압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된 코카인은 시가로 약 124억5000만원 규모다. 1인분을 0.1g으로 계산하면 약 50만명이 한번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해당 선박은 남미에서 출발해 동남아를 거쳐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고, 부산항에 경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선박에 코카인이 실려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감히 날 신고해”…양심 품고 이웃 흥기로 찌른 50대

전북 완주경찰서는 형사처벌 받은 것에 양심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흥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에 완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B(40대)씨를 흥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신을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한 것에 양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차, 육아휴직중이던 경찰관 치어 숨져

현지 경찰관이 운전하던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힌 뒤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잇따라 추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9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사거리에서 A경사는 자신의 파사트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B(24)씨의 SM7 차량에 받쳤다.

B씨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

이 추돌로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밀려났고, 이후 마주 오던 택시 등 승용차 2대와 잇따라 추돌했다.

A경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만인 31일 숨을 거뒀다.

사고를 낸 B씨는 사고 수습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50여 분만에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현장에 있던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 였다.

제주 시내 밭에서 30대 여성 시신 발견…경찰 수사

제주 시내서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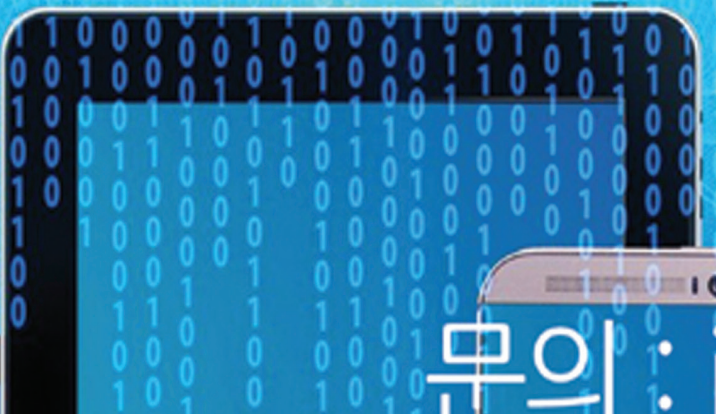
지난달 31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제주시민속오 일장 후문에서 공항 방향 이면도로 인근 밭에서 30대 후반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죄 연루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